

2월 책모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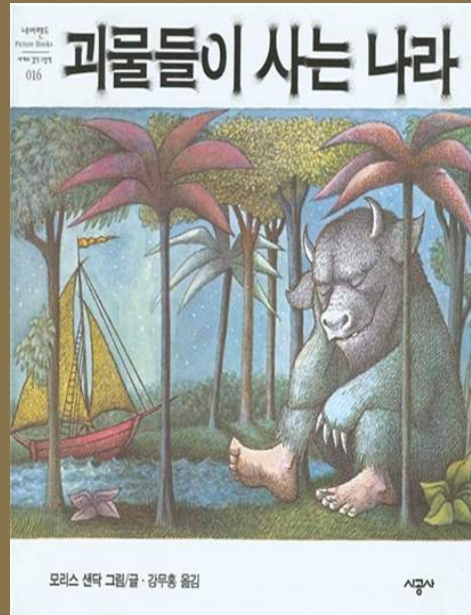
"상상이 필요한 그림책"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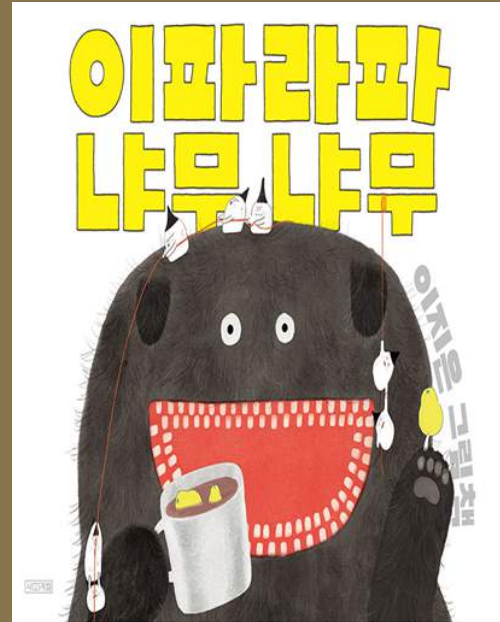


2월의 책모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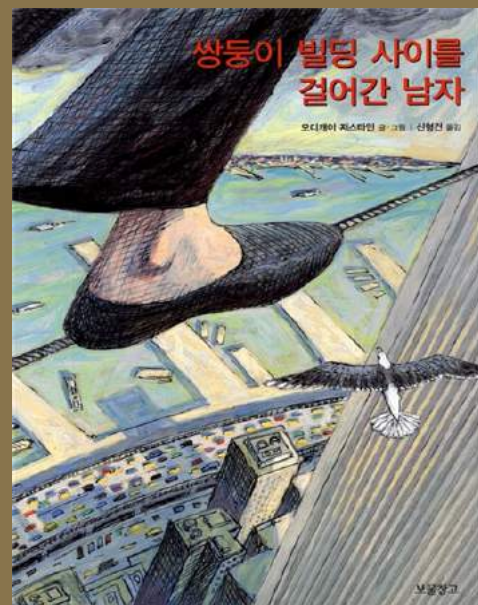
상상이 필요한 그림책



괴물들이 사는 나라



이파라파냐무냐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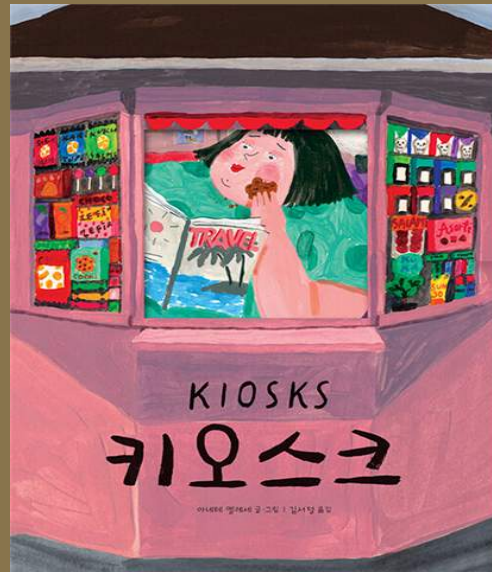
쌍둥이 빌딩 사이를 걸어간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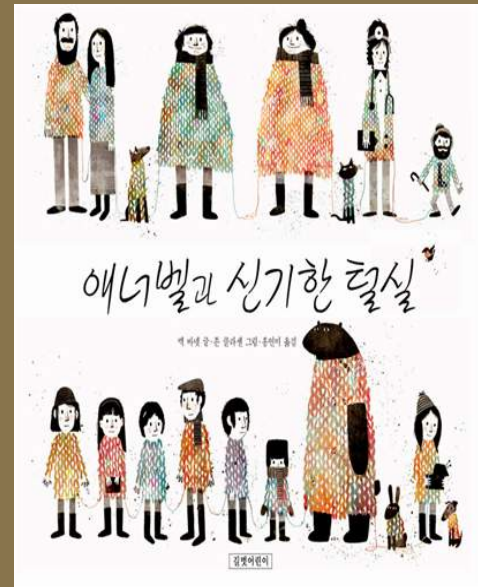
내 마음 스스ㅎ



상상이 필요한 그림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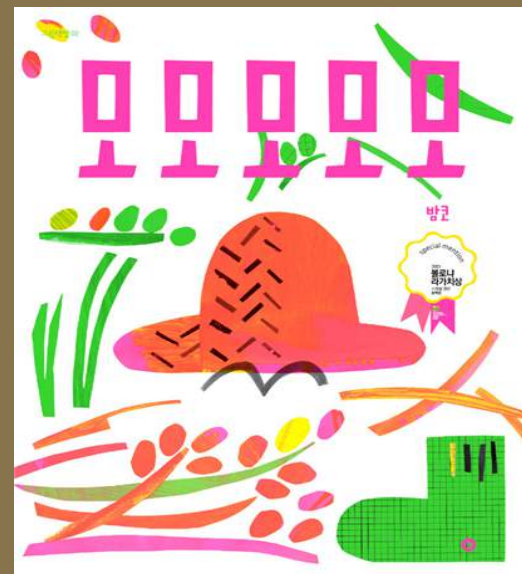
키오스크



애너벨과 신기한 털실



그들은 결국 브레멘에 가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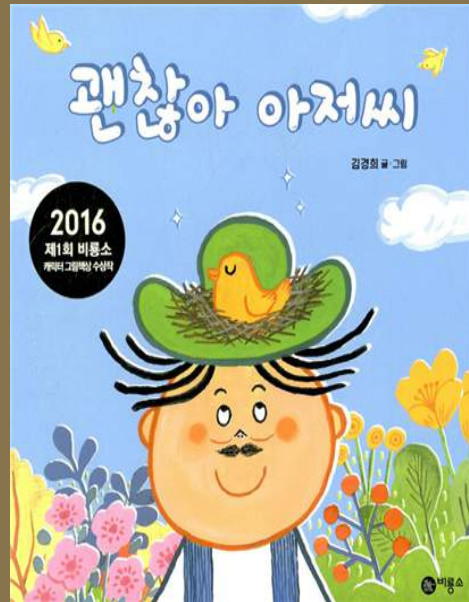


모모모모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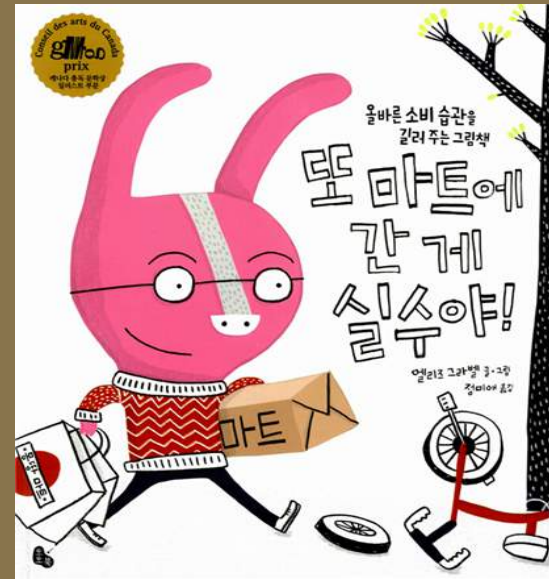


2월의 책모아보다

상상이 필요한 그림책



관참아 아저씨



또 마트에 간 게 실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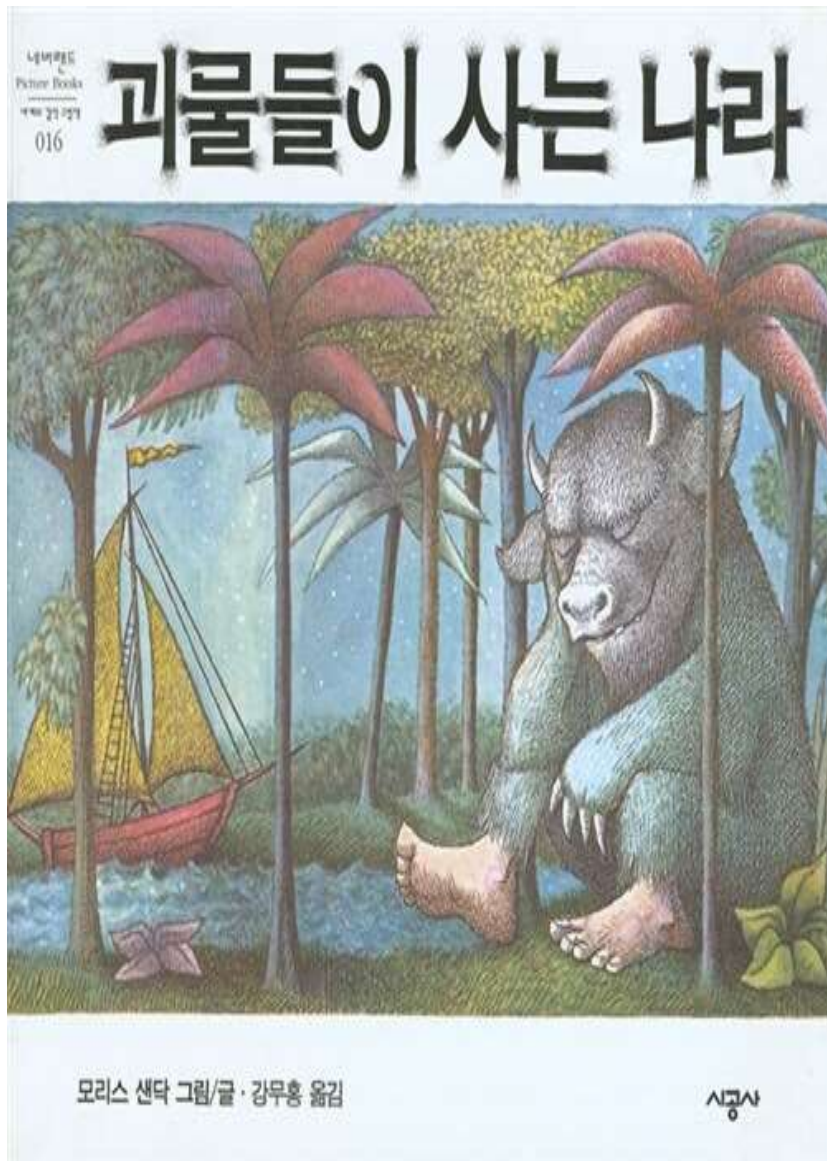


홀라홀라 추추추



인어를 믿나요?

2월 책모아보다, 상상이 필요한 그림책



책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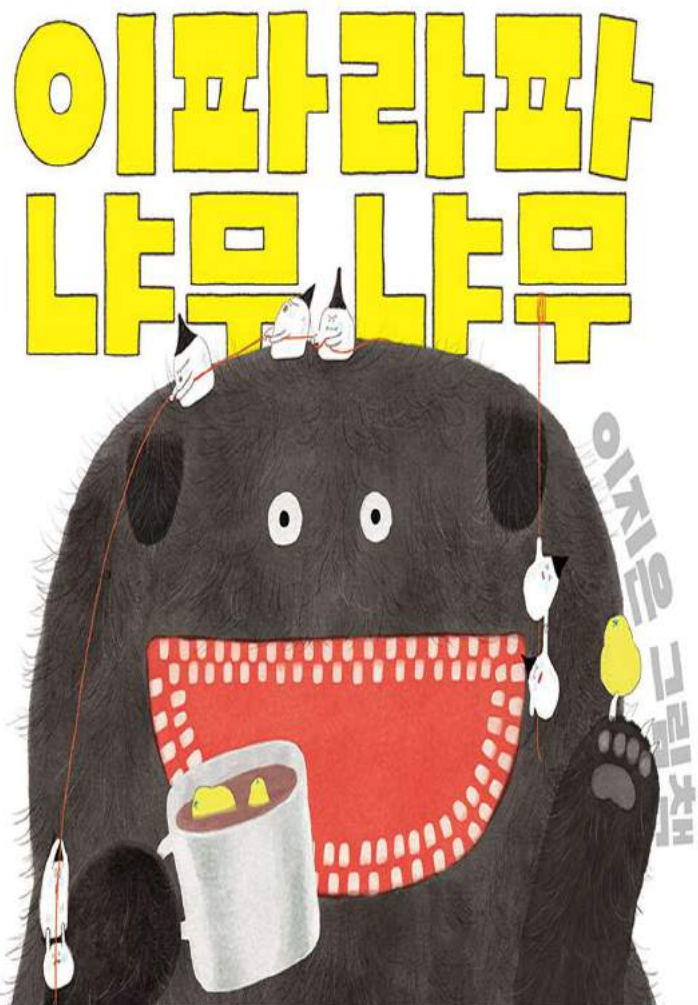
- ◎ 서명: 괴물들이 사는 나라
- ◎ 모리스 샌닥 글·그림 ; 강무홍 옮김
- ◎ 발행자: 시공주니어
- ◎ 발행년: 2017
- ◎ 청구기호: 유 843-샌221-2

책 소개

1964년 칼데콧 수상작. 늑대 옷을 입고 장난을 치다가 엄마한테 야단맞은 꼬마가 방에 갇히는데, 방이 갑자기 숲이 되고 바다가 되고 세계 전체가 되어 꼬마를 괴물 나라로 데려간다. 꼬마는 괴물 나라의 왕이 되어 의기 양양하게 귀환하고 방 안에는 따뜻한 식탁이 차려져 있다. 현실 세계에서 경험한 엄마와의 감정적인 대립을 상상의 세계에서 풀도록 유도한다.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드는 괴물들의 뾰족한 이빨과 발톱, 뿔 같은 무시무시한 외형과 달리 어딘가 어수룩하고 천진난만해 보이는 괴물들의 매력, 그리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소리 지르고 두 손과 발을 들어 노는 맥스와 괴물들의 놀이 현장은 유쾌함과 통쾌함을 함께 선사해 준다. 무섭고 공격적이고 포악한 괴물, 또는 맥스의 감정을 표현한 글과 달리 천진난만하게 웃는 따뜻한 그림은 책 읽기의 재미를 더욱 크게 만든다.

2월 책모아보다, 상상이 필요한 그림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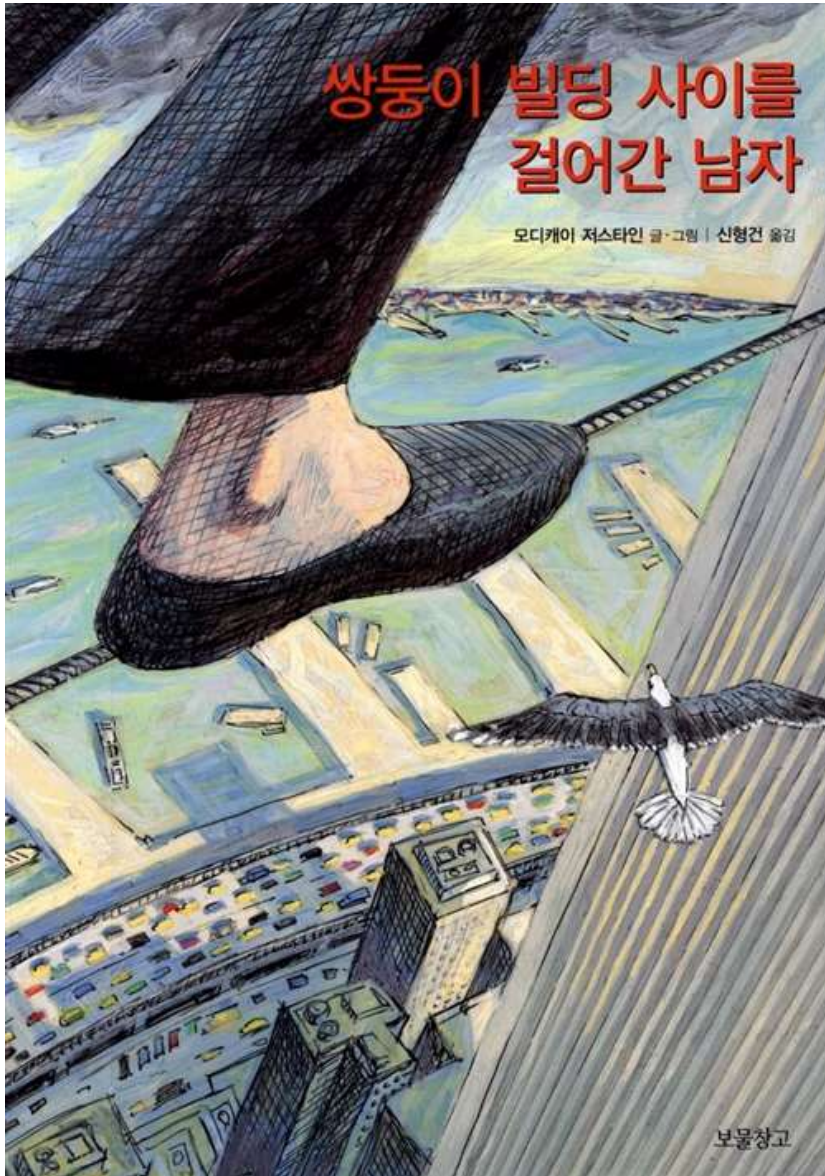
책 정보

- ◎ 서명: 이파라파 나무 나무
- ◎ 이지은 글 · 그림
- ◎ 발행자: 사계절
- ◎ 발행년: 2020
- ◎ 청구기호: 유 813.8-이79ㅇ=3

책 소개

마시멜로가 사는 평화로운 마을. 풍요로운 먹거리와 폭신한 땅, 느긋해서 잠이 솔솔 올 것만 같은 마을의 동산 너머로 어느 날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온다. 이파라파 나무 나무... 이파라파 나무 나무. 소리는 점점 가까이 들리고, 소리를 따라가 보니 산만 한 덩치에 시커먼 털복숭이가 도사리고 있다. 이쯤 되면 제아무리 느긋한 마시멜로들이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데, 대체 저 소리는 뭘까? 나무 나무? 냐냐? 잡아먹겠다는 말인가?

2월 책모아보다, 상상이 필요한 그림책



책 정보

- ◎ 서명: 쌍둥이 빌딩 사이를 걸어간 남자
- ◎ 모디케이 저스타인 글·그림 ; 신형건 옮김
- ◎ 발행자: 보물창고
- ◎ 발행년: 2004
- ◎ 청구기호: 아 843-저58ㄴ=2

책 소개

2004년 칼데콧 상과 보스턴 글로브 혼북 상을 받은 그림책. 1974년 필립 뽀띠라는 프랑스 출신의 젊은이가 '쌍둥이 빌딩'(뉴욕 세계무역센터) 사이에 팽팽한 줄을 매고 300미터 높이의 공중을 오가며 1시간 동안 온갖 묘기를 부린 실화를 시적인 표현과 극적인 구성으로 풀어냈다.

이미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의 두 첨탑과 호주 시드니 하버브릿지에서 불법으로 줄타기를 한 전력을 가진 필립 뽀띠는 60m 가량의 강철 줄 위에서 멋진 묘지를 펼치고 경찰에 연행된다. 그에게 내려진 벌은 '아이들을 공원에 모아 놓고 줄타기를 하라'는 것. 참으로 재치있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2월 책모아보다, 상상이 필요한 그림책



책 정보

- ◎ 서명: 내 마음 스스ㅎ
- ◎ 김지영 지음
- ◎ 발행자: 사계절
- ◎ 발행년: 2021
- ◎ 청구기호: 유 813.8-김79ㄴ

책 소개

제1회 사계절그림책상 대상 수상작. 어느 날, 한 아이에게 찾아온 낯설고 이상한 마음.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맛없고, 갑자기 모든 게 시시해진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내 마음 스스ㅎ>은 일상에서 표현하는 마음의 단어들을 ‘스스ㅎ’ 글자로 산뜻하게 시각화하여 어린이의 마음을 투명하게 그린 그림책이다.

하루에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마음결을 글자로 표현하고, 글자는 어린이의 얼굴에 차곡차곡 포개진다. 수수께끼 같은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어린이의 목소리가 오롯하여 따스한 울림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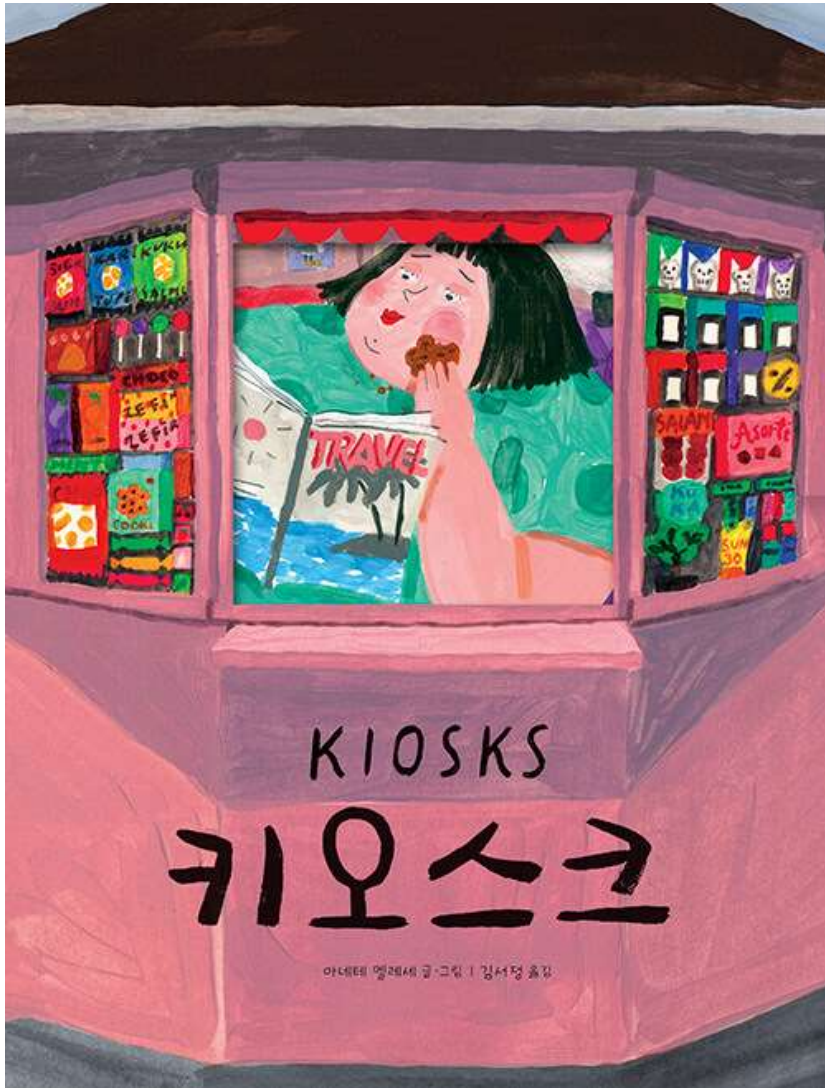
2월 책모아보다, 상상이 필요한 그림책

책 정보

- ◎ 서명: 키오스크
- ◎ 아네테 멜레세 글·그림 ; 김서정 옮김
- ◎ 발행자: 미래아이
- ◎ 발행년: 2021
- ◎ 청구기호: 유 853-멜233ㄱ

책 소개

2021년 피터 팬 상 수상작. 사고에 가까운 우연한 행운으로 꿈을 찾는 여행을 떠나게 된 올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거침없는 선과 강렬한 색채의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선보였던 이 이야기는 어린이 독자뿐 아니라 꿈을 잃어 가는 어른들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준다. 올가의 키오스크처럼 현실이라는 키오스크가 우리를 옥죄더라도, 각자의 키오스크 속에서 꿈을 꾸고 또 이를 수 있다고, 중요한 건 무엇을 꿈꾸는가라고 이 그림책은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2월 책모아보다, 상상이 필요한 그림책

책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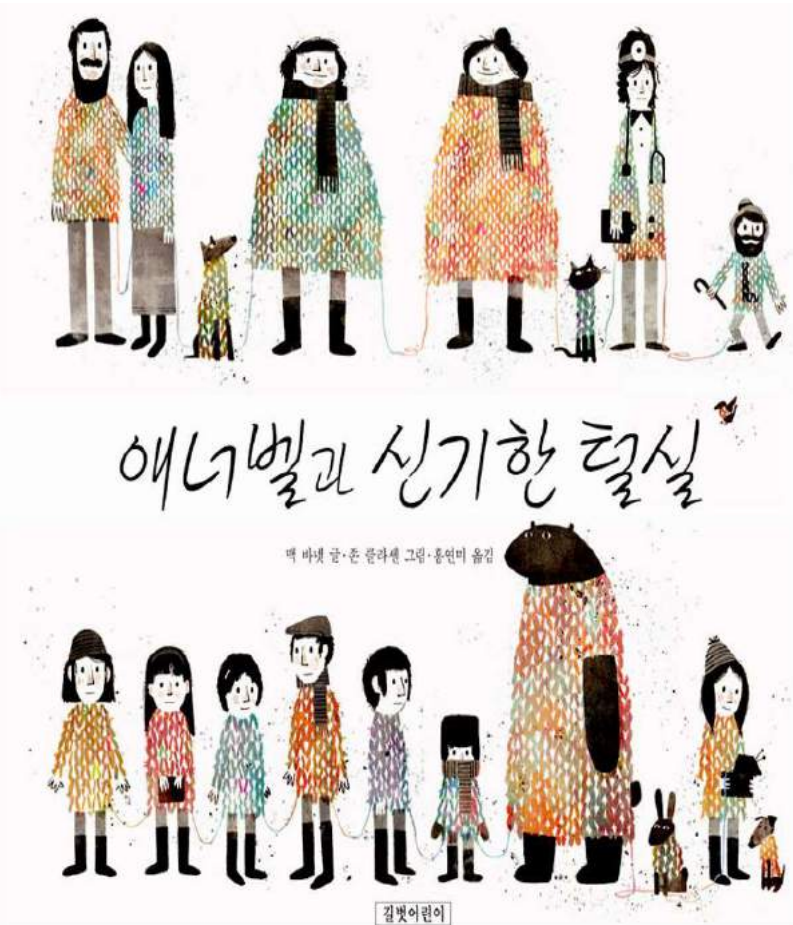
- ◎ 서명: **애너벨과 신기한 털실**
- ◎ 맥 바넷 글 ; 존 클라센 그림 ; 홍연미 옮김
- ◎ 발행자: 길벗어린이
- ◎ 발행년: 2013
- ◎ 청구기호: 유 843-바213o

책소개

2013년 칼데콧 명예상, 2012년 보스턴 글로브훈북 상 수상작. 뜨고 또 떠도 떨어지지 않는 털실을 가진 놀라운 아이의 이야기다. ‘여백이 많은 우아한 글과 그림에 진지한 유머가 스며 있다. 이 기발하고 멋진 이야기는 한 아이의 창의성과 자기 주변의 세상을 바꾸는 능력에 대한 조용한 찬사이다.’ 라는 평가를 받으며 2013년 칼데콧 명예상을 받았다.

새하얀 눈과 까만 검댕밖에 보이지 않는 작고 추운 마을에 사는 애너벨은 갖가지 색깔의 털실이 들어있는 조그만 상자를 발견한다. 애너벨은 털실로 스웨터를 떠 입고, 남은 털실로 강아지 마스에게도 한 벌 떠 준다. 또한, 털실로 친구들에게 스웨터를 떠 주고, 엄마 아빠를 비롯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도 스웨터를 떠 준다.

사람들은 금방 실이 다 떨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게 여러 벌을 뒀는데도 털실은 계속 남아 있었다. 추운데다가 검댕으로 칙칙하던 마을은 알록달록하고 따뜻한 옷을 입은 마을로 변하게 된다. 신기한 털실을 가진 놀라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귀족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줄 테니 상자를 팔라고 하는데...



2월 책모아보다, 상상이 필요한 그림책

책 정보

- ◎ 서명: 그들은 결국 브레멘에 가지 못했다
- ◎ 루리 글·그림
- ◎ 발행자: 비룡소
- ◎ 발행년: 2020
- ◎ 청구기호: 유 813.8-루239ㄱ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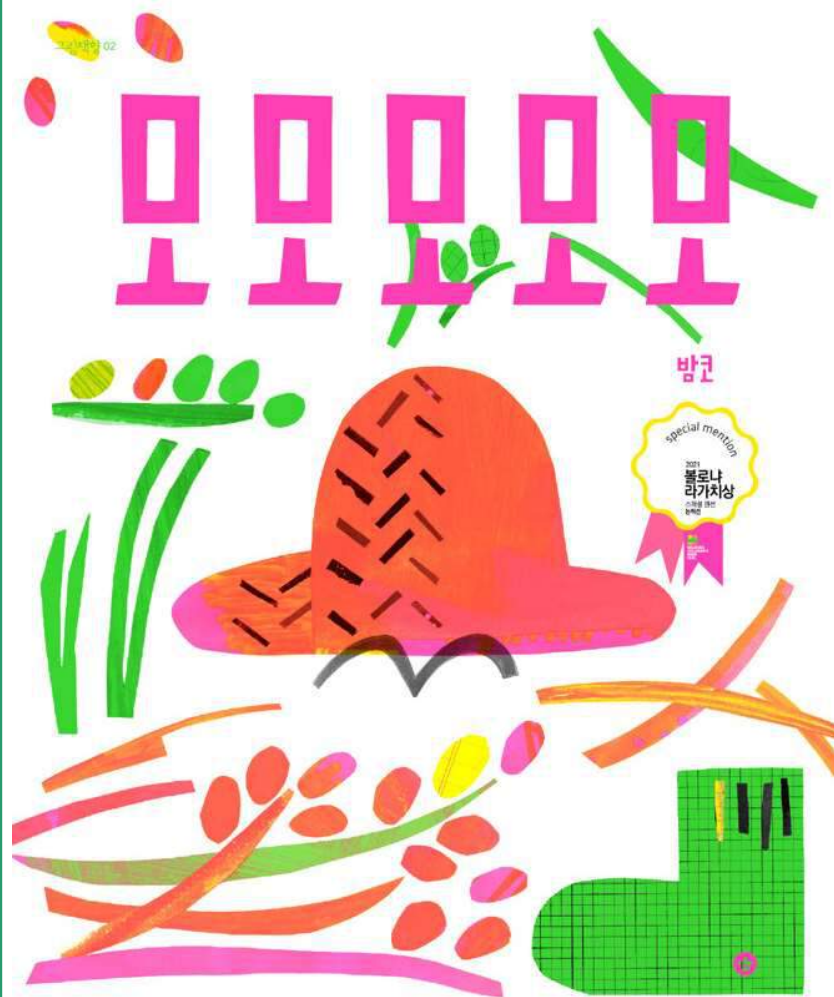
“제26회 황금도깨비상 수상작”

도둑과 동물들은 자신에게 남은 소중한 음식과 식기를 모아 김치찌개를 끓인다. 그리고 상상해본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함께 힘을 모아 김치찌개 가게를 차렸으면 어땠을까? 결국은 브레멘에 도착하지 못한 '브레멘 음악대'처럼, 갈 곳을 잃은 이들이 모여 소박한 식사를 앞에 두고 꿈같은 상상을 해보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난다. 하지만 결코 우울하거나 서글프지 않다. 뒷면지에서는 동분서주하며 가게를 준비하는 이들의 모습이 펼쳐진다. 그들은 결국 브레멘에 가지는 못했지만, 희망은 남는다.

'사회 문제와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 위트 넘치는 작품.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묘사, 그리고 곳곳에 스며든 유머로 독자들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다.'는 평가 함께, 2020년 제26회 황금도깨비상을 수상했다.



2월 책모아보다, 상상이 필요한 그림책



책 정보

- ◎ 서명: 모모모모모
- ◎ 밤코 지음
- ◎ 발행자: 향
- ◎ 발행년: 2019
- ◎ 청구기호: 유 813.8-밤825ㄱ

책 소개

모를 심고, 벼가 자라고, 피도 자라고, 바람에 넘어지고, 일으켜 세우고,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벼를 베고, 탈곡을 하고, 새도 먹고, 여물도 만들고, 마침내 쌀이 되어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벼의 한 살이를 유쾌하게 표현한 그림책이다. 이 그림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으로 된 글은 하나도 없다. 아,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잘 먹겠습니다.’, 딱 이 하나만 문장이다. 그런데도 우리 귀에는 마치 농사의 전 과정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처럼 들린다.

2월 책모아보다, 상상이 필요한 그림책



책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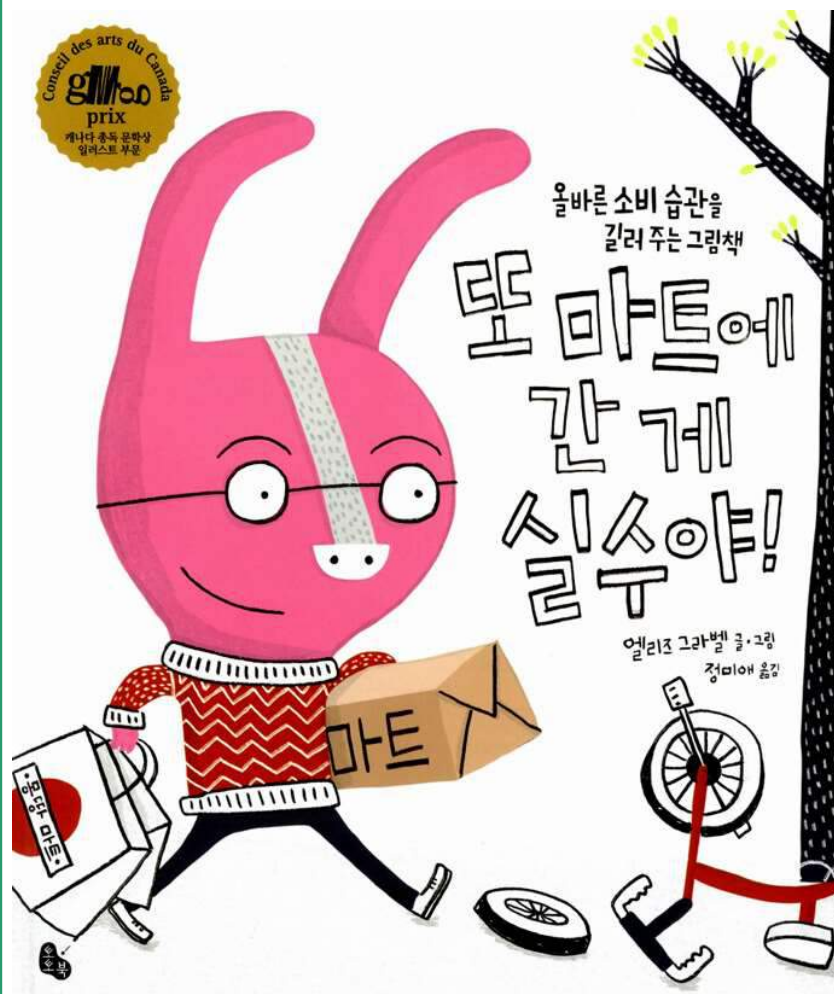
- ◎ 서명: **괜찮아 아저씨**
- ◎ 김경희 글·그림
- ◎ 발행자: 비룡소
- ◎ 발행년: 2017
- ◎ 청구기호: 유 813.8-김14ㄱ

책 소개

2016 제1회 비룡소 캐릭터 그림책상 대상 수상작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밝고 유쾌한 인물 캐릭터 ‘괜찮아 아저씨’를 주인공으로 장면 연출은 물론이고 이야기의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평을 들으며 대상작으로 결정되었다. 이 그림책은 딱 열 가닥만 있는 아저씨 머리카락이 한 올, 한 올 빠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무척 유쾌하게 그려낼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괜찮다.’는 긍정의 힘과 위로를 준다.

더욱이 아이들에게 장면이 바뀔 때마다 아저씨 머리카락을 세어 보는 재미까지 준다. 10부터 시작해 수를 거꾸로 세고 빠다 보면 수 개념이 쑥쑥 잡힌다. 주문처럼 반복되는 “오, 괜찮은데?”는 보는 이에게 따뜻함과 평온함까지 더해 준다.

2월 책모아보다, 상상이 필요한 그림책



책 정보

- ◎ 서명: 또 마트에 간 게 실수야 : 올바른 소비 습관을 길러 주는 그림책
- ◎ 엘리즈 그라벨 글·그림 ; 정미애 옮김
- ◎ 발행자: 토토북
- ◎ 발행년: 2013
- ◎ 청구기호: 유 863-엘239ㅌ

책 소개

몽땅 마트에서 친절한 마트 씨의 꼬임에 넘어가 곤경에 빠지는 꼬마 붐의 이야기를 통해 잘못된 소비 습관을 꼬집는 그림책이다. 충동구매를 거듭하면서 난처해지는 붐의 엉뚱한 쇼핑을 보며 한바탕 웃고 나면 자연스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

꼬마 붐은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다가 길 한가운데 솟아 있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만다. 넘어진 것도 속상한데 자전거 뒷바퀴까지 빠져 버렸다. 붐은 멍키 스패너를 사러 ‘몽땅 마트’로 간다. 그곳에서 만난 친절한 마트 씨는 멍키 스패너는 주지 않고 자꾸 다른 물건만 건넨다.

붐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달콤한 말들도 쏟아 낸다. 아이스크림을 넣을 수 있는 얼음땡 모자, 세상 모든 노래가 흘러나오는 랄랄라 잠옷,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할 우르릉 확성기에 붐은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 결국 멍키 스패너는 까맣게 잊어버리는데...

2월 책모아보다, 상상이 필요한 그림책



책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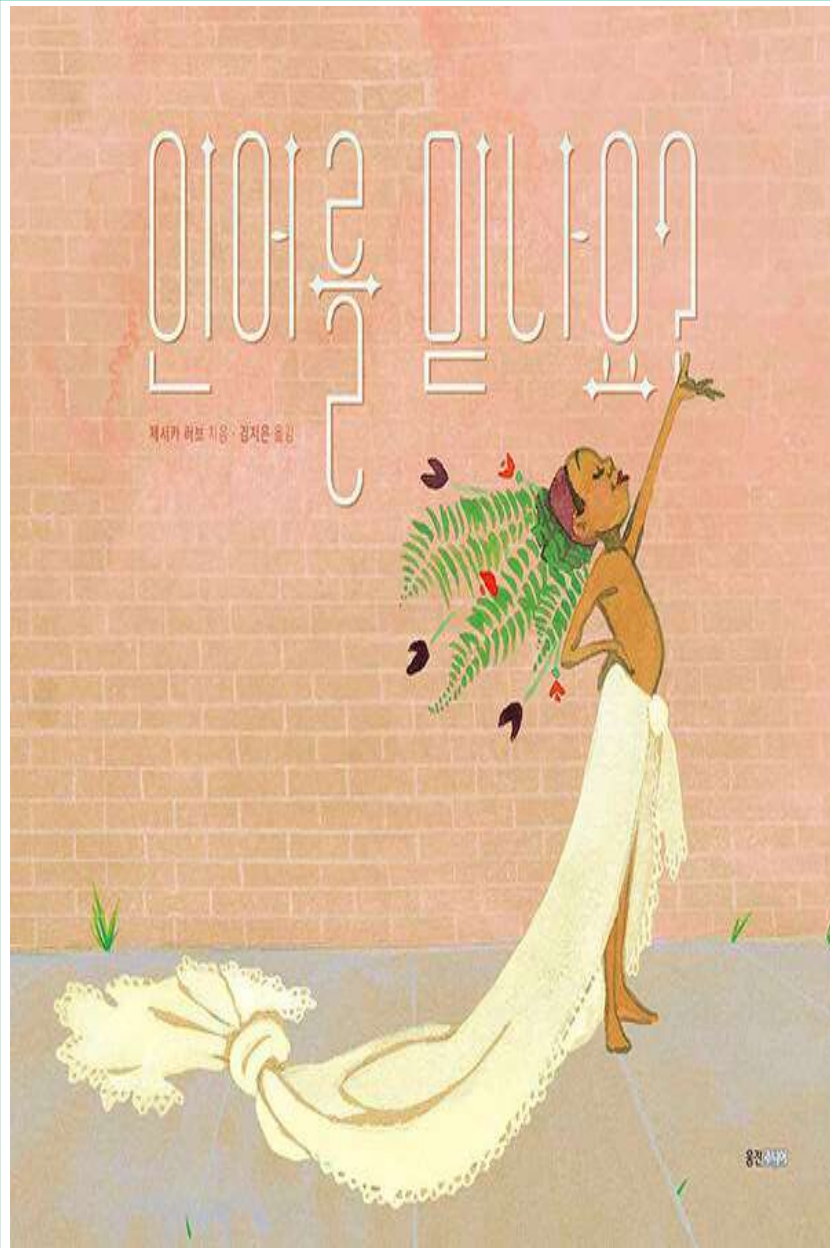
- ◎ 서명: 홀라홀라 추추추
- ◎ 카슨 엘리스 지음 ; 김지은 옮김
- ◎ 발행자: 웅진주니어
- ◎ 발행년: 2017
- ◎ 청구기호: 유 843-엘239ㅎ

책 소개

베스트셀러 그림책 <우리 집>의 작가이자, 청소년 소설 ‘와일드우드 연대기’ 시리즈에 그림을 그린 일러스트레이터로 국내에 잘 알려진 카슨 엘리스의 두 번째 창작 그림책이다. 독보적인 스타일의 일러스트, 사려 깊은 발화와 독창적인 이야기 전개로 깊은 울림을 만들며, 2017년 칼데콧 아너상을 받았다. 칼데콧 아너상은 미국도서관협회에서 매년 가장 뛰어난 그림책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린다.

작가 카슨 엘리스에게는 식물의 성장 과정과 계절 변화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일이다. 그림책 작가이자 정원사이기 때문이다. 식물의 타고난 존재 방식을 존중하면서 오랜 시간 애정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보듬어 온 카슨 엘리스는 이내 식물의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곤충의 눈과 소리를 빌려 속삭이듯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삶 하나에 관여하는 다양한 존재들, 다 함께 어울려 상호 의존하는 삶, 그 삶의 순환이라는 깊이 있는 성찰이 담긴 재치 있고 창의적인 그림책 <홀라홀라 추추추>로 말이다.

2월 책모아보다, 상상이 필요한 그림책



책 정보

- ◎ 서명: 인어를 믿나요?
- ◎ 제시카 러브 지음 ; 김지은 옮김
- ◎ 발행자: 웅진주니어
- ◎ 발행년: 2019
- ◎ 청구기호: 유 843-러48ㅇ

책 소개

“우리 안의 사랑을 발견하는 질문!”

“할머니는 인어 봤어요?”

“그럼, 봤지.”

“할머니... 나도 인어인데.”

수영을 좋아하는 소년 줄리앙은 할머니와 함께 수영장을 다녀오는 길에, 인어 분장을 한 무리를 만난다. 집으로 돌아온 줄리앙은 화분과 커튼으로 인어 분장을 하고, 이를 발견한 할머니는 줄리앙을 데리고 길을 나선다. 광장에는 인어 무리가 행진을 하고 있다. “그래, 우리 꼬마 인어도 같이 가 볼래?” 인어들은 함께 걷는다.

소년의 조금은 특이한 소망과 이를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시카 러브의 첫 그림책이다. 작가는 스스로를 발견한 이들에게 작은 파티를 열어 주고 싶다는 바람으로 이 책을 지었다고 한다. ‘볼로냐 라가치상 오페라프리마 부문’과 ‘에즈라 잭 키츠 상’의 심사위원단은 각각 “놀랍도록 섬세한 감정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 “짧지만 완벽한 이야기. 누군가의 꿈을 어떻게 지지해야 하는가를 보여 주는 작품.”이라 평하며 상을 수여했다.